

독서매뉴얼 개발과 독서교육

강영기*

<목 차>

1. 들어가며
2. 독서교육의 흐름과 평가
3. 독서매뉴얼 개발과 독서교육
4. 독서매뉴얼 개발과 독서교육 평가
5. 나오며

1. 들어가며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교육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의해 그 다양함 만큼이나 창의적으로 구안되어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 담긴 중심 내용은 학생들의 책을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함에 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독후 활동의 전개를 통해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독서교육의 갖는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2004년 10월에 발표한 2008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¹⁾을 통해 ‘독서매뉴얼 개발 및

* 문학박사, 평론가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시범운영('05-'06)을 통해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강화하고 각종 특별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지는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여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독서교육에 대한 의지가 대학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려는 독서매뉴얼 개발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실시한 독서교육의 측면에서 '어떤 책을 읽힐까?'의 고민에서 시작된다. 현재까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교육의 교수-학습 활동은 독서교육을 형성하는 형식이라면 독서매뉴얼 개발은 독서교육이 담아내야 할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은 '어떤 내용의 책을 어떻게 읽힐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더 나아가서는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서매뉴얼 개발에 관한 논의를 통해 독서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독서매뉴얼 개발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이나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독서매뉴얼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서매뉴얼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독서교육의 흐름과 평가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은 다양한 방법과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서를 통해 창조적인 인간상을 구현함이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독서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간략하게 짚어보

고자 한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은 학교 단위 전체 독서교육과 학급 단위 개별 독서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 단위 전체 독서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독서교육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학교라는 하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투입하는 독서교육이다. 한편, 학급 단위 개별 독서교육은 학급 담임에 의해 학급 학생들에게 한정적으로 투입하는 독서교육이다.

학교 단위 전체 독서교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독서교육의 지닌 의도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학교 의도대로 독서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너무 획일적이다.'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의 지닌 독서능력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학급 단위 개별 독서교육은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학급 학생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쉽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과 활동과 학급 활동을 독서교육으로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너무 과도한 독서량과 독후활동을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

독서교육의 흐름은 그 의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독서 흥미 유발 또는 독서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표현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교과 교육과 연계한 독서교육',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 등이다.

독서 흥미 유발 또는 독서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²⁾은 학생들에게 책읽기

-
- 2)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독서교육의 흐름은 제주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의 흐름이다. 이렇게 제한점을 두는 이유는 제주도만이 지닌 독특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구안·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오정옥, 「책 속의 보물을 찾는 아이들」(신창초등학교, 1999).
 고덕진, 「개나리골 독서왕」(도남초등학교, 1999).
 김선희, 「다양한 독서 지도 방법을 통한 독서습관 형성 방안」(중문초등학교, 1999).
 오복자,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 흥미 유발 및 독서 생활화의 정착」(서귀중앙초등학교)

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그것을 독서력 향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독서 생활 약속, 독서 반가, 아침 독서 조회, 다독상 시상, 독서에 관한 명언록 작성, 독서 달력 만들기, 독서 급수제, 책 돌려 읽기, 독서 일기, 독서 게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 속에는 독서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지며, 학생들의 실천 활동을 통해 독서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독서 흥미 유발을 위한 독서교육은 그 중점을 독서 흥미와 독서 습관 형성에 두기 때문에 독서 환경 조성과 독후 활동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조는 독서를 통해 형성되는 학생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쓰기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독서교육의 방법은 표현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⁴⁾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요구한다. 독서 감상문인 경우 이해, 사고, 표현 3요소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편지 글 형식, 일기문 형식, 시 형식, 기행문 형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후활동이 이루어진다. 한편, 독서한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법인 창의적 독후활동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독서 마인드 맵, 독서화 그리기, 만화로 표현하기, 읽

교, 2000).

김청자, 「다양한 체험 독서로 섬 속의 꿈을 가꾸어요」(연평초등학교, 2000).

강영기, 「독서방송을 활용한 독서교육」(남주고등학교, 2000).

안희숙, 「푸른 꿈을 가꾸는 아이들」(동광초등학교, 2001).

고순옥, 「책 속에서 꿈을 키워요」(도남초등학교, 2001).

김재령,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나누는 독서의 보람」(2003).

하성희, 「야! 신나는 독서 놀이다」(동광초등학교, 2003).

하명금, 「책으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남읍초등학교, 2004).

- 4) 허덕희, 「학습자 중심의 독서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독서력 기르기」(서귀북초등학교, 1999).

송창선, 「작은 섬에서 만나는 큰 세상-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추자중학교, 2000).

송여옥, 「생각을 키우는 행복한 아이들의 독서활동」(남광초등학교, 2000).

강정희, 「즐거움 독서 체험을 통한 사고력·표현력 신장 및 인성교육」(화북초등학교, 2001).

강현심, 「즐거움 독서로 생각을 열어가는 아이들」(제주북초등학교, 2001).

오시열, 「디지털과 아날로그, 자연 속의 독서 활동」(무룡중학교, 2004).

은 책 광고하기, 노래로 바꿔 부르기, 독서 신문 만들기, 독서 역할극, 독서 토론 등이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지닌 사고의 무궁무진함을 발견할 수 있다.

표현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 독서 감상을 일상적인 원고지위에서 글로 써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하며,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독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독후활동에서 너무 표현과 창의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알맞은 독서 지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또한, 독후활동에 대한 창의적인 표현 요구로 인해 학생들은 자칫 책의 내용에 대한 충실한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시도된다. 교과 교육과 연계한 독서교육⁵⁾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교과와 관련한 내용의 책을 읽게 함으로써 교과의 배경지식을 넓히려는 의도를 지닌다. 교과와 관련한 독서 교육과정안의 구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 자료를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활동을 교과에 알맞게 재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과 학습에 관한 흥미와 배경지식을 높이고 있다.

교과 교육과 연계한 독서교육은 교수-학습 과정과 독서의 과정을 통해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과 같은 고등정신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교과와 모든 수업시간에 구안되어 활용하지 못한다는 시간적 한계를 지닌다.

5) 홍성해, 「자기 주도적 모둠 학습을 위한 독서 지도 자료 개발·적용」(서귀포여자고등학교, 1999).

진규섭, 「우리 교과와 관련한 독서 교육의 활성화」(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1999).

이희숙, 「재미있고 신나는 독서 활동-국어과 독서지도 이렇게 한다」(제주동여자중학교, 2000).

허민석, 「법교과 학습을 위한 독서 과정 모형 구안·적용 방안」(한림고등학교, 2001).

학교 도서관 활용을 통한 독서교육⁶⁾은 앞에서 제시한 독서 흥미 유발과 독서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과 표현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그리고 교과 교육과 연계한 독서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특히,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은 교과 교육과 연계한 독서교육과 관련한 독서교육의 내용을 더욱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그래서 교과 교수-학습과 관련한 도서와 다양한 매체 이용을 통해 효율적인 교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알고 싶은 내용을 직접 찾아 해결함으로써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듯, 독서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은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이 지닌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은 지금까지 일부의 연구학교를 통해 실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사서 교사의 확보, 독서 환경 조성 등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의도에 따른 독서교육은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독서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독서교육은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서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그 평가를 내렸다. 독서교육은 앞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독서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몇몇 독서교

6) 양영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도서관 운영 방안」(제주제일고등학교, 2002).

허덕희, 「학교 도서실 살리기 운동을 통한 독서지도」(서귀포초등학교, 2002).

양정식,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도서관 활용을 통한 학습과 독서지도 계획·실천」(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004).

육 담당자나 독서교육에 관심을 지닌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학교 차원의 전체 독서교육만 하더라도 독서교육은 독서교육 업무 담당자나 일부 교과목의 일처럼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나가 독서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과중과 교수-학습에 따른 교재 연구 등 쉽게 실천적인 활동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교육 현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독서매뉴얼을 통해 독서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원만하게 풀리기를 기대한다.

3. 독서매뉴얼 개발과 독서교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독서매뉴얼을 개발하고, 독서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겠다는 발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육주체에게 두 가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읽힐 도서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 없는 독서매뉴얼이 개발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독서활동과 비교할 때 현저히 뒤떨어지는 정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 그것이다. 따라서 독서매뉴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독서매뉴얼 개발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독서매뉴얼 개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독서매뉴얼이란

독서매뉴얼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교육의 틀을 깨고 국가에서 주도로 독서매뉴얼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독서매뉴얼의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견해를 바탕으로 그 정의를 내린다면, 독서매뉴얼은 교과와 관련한 필독·권장도서 선정, 독서 결과 확인 및 기록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과목 수강생은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에 교사가 그 과목의 배경 독서목록으로 지정한 독서물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며 교사는 구술시험 등을 통해 과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일련의 방식을 독서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05년도에 7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2006년도에 4개 교과(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와 관련한 독서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독서매뉴얼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독서교육을 하려는 의도 속에는 대학입시와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학능력시험에 의한 학생 선발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심층면접, 논술고사 등의 자체 전형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의 이러한 의도는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지이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논술과 구술면접시험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방법의 전환은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도 하여금 새로운 대학입학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독서매뉴얼 개발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게 했다. 즉, 독서매뉴얼 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독서 프로그램을 세워 책읽기 및 글쓰기를 꾸준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입시 문제 해결이라는 해법을 찾고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독서교육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독서교육의 연장이며, 이미 시·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독서교육의 방법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7)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2005).

8)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1999), 『두 번째로 읽은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2003)를 통해 학교 차원에서의 독서지도 방안, 교사 차원에서의 독서지도 방안, 교과별 독서지도의 방법과 평가방법을 수록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가능하게 하

독서매뉴얼의 개발은 학교 현장의 상황⁹⁾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과의 연속성 속에서 그 내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개발해야 한다.

2)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도서 선택의 기준

독서매뉴얼 개발에서 한 축을 이루는 것은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의 고민이다. 그것은 도서 선택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필독 도서와 권장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읽히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이 필독 도서이고 무엇이 권장 도서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필독 도서와 권장 도서의 선별 기준의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좋은 책, 양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들이대고 있다. 그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 독서교육을 위해 필독 도서와 권장 도서를 선정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단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추천한 도서를 학교 독서지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형식을 띠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어떤 기준에 의해 제시해야 할까?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는 많은 양의 ‘독서목록’과 구체성을 띤 ‘도서목록’이 제안되었지만 어떤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독도서나 권장도서를 통해 책을 읽도록 한다. 이러

는 독서지도 장학자료를 개발하였다.

- 9) 문학교과에서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문학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지식으로 습득하고, 문학의 주는 아름다움을 감상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본다면, 그에 대한 대답이 올바른 방향에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작품들이 요약되어 이루어진 다이제스트식 출제 문제집의 태두리 속에서 문학 영역을 읽고, 이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정답만을 찾았을 뿐이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문학에 대한 미적 감상이나 독서에 대한 동기 유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학을 느껴보라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조차도 힘든 그들에게 숲을 보라고 강요한 꼴이 되어 버렸다. 너무나 극단적인 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학교교육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문학 교육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강영기, 「그들에게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줘야 한다」, 『삶과 문화』(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36~37쪽.

한 이유는 필독도서나 권장도서는 내용면에서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필독도서와 권장도서를 학생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책의 내용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표현하게 한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는 좋은 책의 조건을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국민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 시스템」 상의 상황별 독서목록』을 통해 독서상황을 “어떤 사람이 책을 읽거나 읽고자 할 때 처해 있는 정신 및 신체적 상태나 조건 혹은 사회적인 입장이나 여건”으로 규정하면서 도서 내용의 적절성을 통해 독자가 현재 처해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그것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도서를 선정¹⁰⁾하고 있다. 즉,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독서상황과 내용의 적절성을 도서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독서교육 이렇게 합시다』¹¹⁾에서는 정서적 목적, 실용적 목적, 도구적 목적에 따라 읽을거리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정서적 목적인 경우 사색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것, 인간과 자연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고 있으며, 실용적 목적인 경우 논리와 추리력을 키울 수 있는 것, 과학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 역사 이해를 위한 것, 국제 이해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도구적 목적에 의한 분류는 성장 발달 수준에 알맞은 것, 교양과 인성 심성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 도덕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 대인 관계를 신장시킬 수 있는 것,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것, 환경 이해를 돕는 것 등으로 그 설정 기준을 나누고 있다.

신헌재 외 3인이 편저한 『독서교육의 이론과 방법』(서광학술자료사, 1993)

10) 상황을 크게 심리상태나 욕구에 따른 상황, 시간과 공간적 상황, 자아의 고민이나 성장과 관련된 상황, 지적인 관심이나 주제, 호기심 등과 관련된 상황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111개의 상황에 알맞은 도서 1012권을 선정하고 있다.

11)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1』(제주도교육청, 1999)과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2』(제주도교육청, 2003)에서는 「읽을거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라는 글을 통해 읽을거리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읽을거리 선택의 문제는 자료 자체가 '좋은' 것이어야 함은 물론 그것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읽기에 '알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내용적 측면에서 효용성과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도서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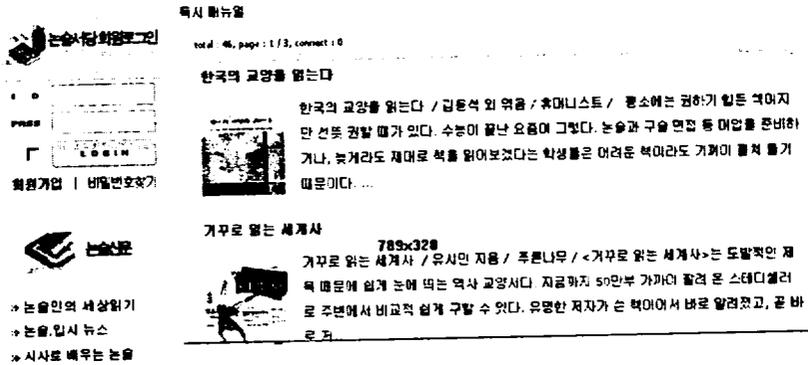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읽히고 싶은 책, 좋은 책의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처한 독서상황에 알맞은 내용과 정서적, 실용적, 도구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동시대적인 효용성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도서 선정에서 그 기준의 과학성, 체계성, 명료성, 치밀성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도서 선정을 할 때 목표의 불명확성은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골라 읽어야 할지를 모르게 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과정 단계에 알맞게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은 중학교 이후 각 단계에서 진로와 관련되지 않는 범위의 독서는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고, 진로와 관련한 독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학년 과정인 공통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한 독서 또는 독서상황에 알맞은 독서가 이루어져야 하며, 11~12학년 과정인 심화·선택과정에는 역사학 관련 분야 그리고 인접 학문인 인문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민속학 등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을 통해 도서 선정의 기준을 논의했다. 학생들에게 막연히 좋은 책이라고 읽기를 권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독서상황에 알맞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 유익한 효용성이 담긴 책을 선정하여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독서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본 모형—문학교과 독서매뉴얼

이미 개발된 사설 학원의 인터넷 사이트 독서매뉴얼을 살펴보면, 논술고를 준비하기 위해 수험생이 읽어야 할 교양서에 대한 간단한 서지 소개가

전부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소개하는 도서가 인성 교육의 차원과 범교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안내라면, 사설 학원의 독서매뉴얼은 논술과 심층 면접을 잘 치르는데 필요한 도서 안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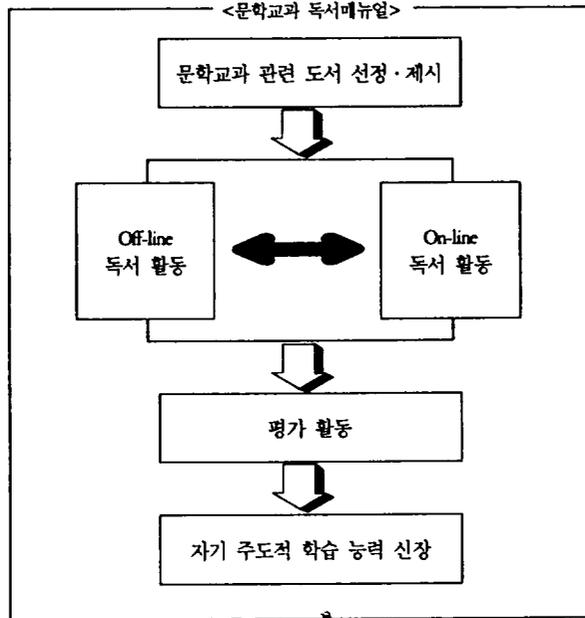
사설학원 사이트의 독서매뉴얼

독서매뉴얼은 단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독서매뉴얼 개발이라는 발상이 어찌되었든 독서매뉴얼은 표현력 신장과 창의성 신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독서매뉴얼은 학생들에게 단순하게 추상적인 읽을거리 요약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독서활동을 강요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창의성을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때 생겨나는 독창적인 사고 능력으로 본다면, 현재 학생들의 보여주는 창의성의 부족은 결국 단편적인 암기를 통한 점수 위주의 교육에 익숙해 있다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독서매뉴얼은 자기 주도적 학습, 토론 및 탐구학습, 수행평가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이라 할 수 있다.

(1) 문학교과 독서매뉴얼 모형

독서매뉴얼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주변 상황

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교과 교육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문학교과와 관련한 독서매뉴얼 개발 모형이다.



문학교과 독서매뉴얼 모형

위 모형에 따른 독서매뉴얼은 단순히 문학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선정하고 학생들에게 읽힘으로써 배경지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 모형은 제시된 각각의 활동 내용이 독서매뉴얼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제시한 모형의 활동을 통해 ① 문학 작품을 읽고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②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표현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③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교과와 관련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독서매뉴얼의 첫째 단계 활동은 도서선정 활동이다. 교사는 문학교과와 관련 도서를 교과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상황, 학생상황을 고

려하여 동시대의 효용성이 담긴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단계 활동은 오프라인 독서활동과 온라인 독서활동이다.

오프라인 독서활동이란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독서활동이다. 이 활동은 크게 독서 전 단계, 독서 단계, 독서 후 단계, 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독서 전 단계에서는 교수-학습의 주제 또는 내용에 필요한 자료 준비 또는 현장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독서 단계는 선정된 도서의 독서활동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독서 후 단계에서는 계획한 현장 학습을 통해 느낀 점과 다양한 독후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한편, 오프라인 독서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문학 현장 학습의 결과 보고서 작성과 다양한 독후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 또는 현실의 상황에 알맞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온라인 독서활동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이다. 이 활동 역시 독서 전 단계, 독서 단계, 독서 후 단계, 평가 단계의 활동이 필요하다. 독서 전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 교과 제재 관련 도서의 내용 또는 현장 학습과 관련한 내용, 작가와 관련 내용을 글(Text)이나 동영상 등 매체를 통해 독서(학습)할 내용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독서 단계는 오프라인 독서 단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한편, 독서 후 단계에서는 다양한 독후활동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활동이다. 평가 단계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교과와 관련한 독서 문항 개발을 통해 독서한 내용을 확인한다.

문학교과 독서매뉴얼의 평가활동은 학생의 독후활동에 대한 교사의 침착 지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과정에는 오프라인 독서활동과 온라인 독서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도서 이해능력과 그것에 따른 창의적인 활동,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평가가 이루어진다.

독서매뉴얼은 ‘도서선정→오프라인 활동·온라인 활동→평가활동’이라는 하위 구성 항목을 통해 하나의 틀로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특기·

적성교육이나 봉사활동, 또는 재량활동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 역시 ‘형식’이라는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학교과와 관련한 독서매뉴얼의 모형을 제시했다. 문학교과와 독서매뉴얼은 도서 선정 활동과 오프라인 독서활동, 온라인 독서활동, 평가활동이 전혀 별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활동 시간의 확보, 교사의 ICT 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의 조건에 따라서는 적절한 문학 체험 학습 공간 등이 필요하다. 활동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는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주5일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토요일무제를 통해 어느 정도 시간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문학 체험 학습 공간의 문제는 지역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직접 문학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문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교사가 독서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ICT와 관련된 사항들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매뉴얼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서교육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고 평가하는 독서교육의 또 다른 방법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방향으로 독서매뉴얼이 개발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려는 독서매뉴얼은 일부 교육주체들의 지닌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독서매뉴얼을 통해 진로 독서매뉴얼로 그 개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독서매뉴얼 개발과 독서교육 평가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교육

을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선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독서교육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독서매뉴얼에 의한 독서교육은 놓여 있다.

하지만, 독서매뉴얼에 의한 독서교육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에 대한 반성의 측면도 담겨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독서교육은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몇몇 교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사에 의해 형식적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독서교육의 형식적 진행은 결국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학생들의 객관적 평가 문항에서 벗어난 다른 형식의 평가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서교육이 실천적 활동을 통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면,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은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특기·적성 교육처럼 ‘형식’이라는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은 교사 전체의 실천적 활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의 지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독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독서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마련해야 한다. 영어인증제나 정보소양인증처럼 일정 정도의 능력이 되는 학생들에게 인증의 절차를 걸쳐 독서능력을 인정할 때, 평가기준의 객관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능력에 대한 평가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때, 그것의 평가기록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다.

5. 나오며

독서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의 중요성은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교육을 전개하게 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 역시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독서교육이 특정교과와 몇몇 교사에 의해 전개되었다면, 독서매뉴얼을 통한 독서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모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천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직접 교과와 관련한 도서를 선정하고 그것을 학생의 진로에 알맞게 제시해야 하며, 독서 활동의 과정에서 학생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서매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학 입학제도 개선방안이나 학생학력신장 방안을 통해 추상적으로 제시될 뿐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논의한 독서매뉴얼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독서매뉴얼은 대학입시와는 별개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독서매뉴얼은 자기 주도적 학습, 토론 및 탐구학습, 수행평가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이기 때문이다.

독서교육은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의 실정과 수준에 알맞게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신의 몸에 알맞은 옷을 입을 때 몸의 자유로운 것처럼, 학교 현장에 알맞은 독서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의 영혼 역시 자유로운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2004.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 2005.
- 제주도교육청,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 1999.
- _____, 『읽으면 행복합니다』, 1999.
- _____, 『읽으면 행복합니다-2』, 2000.
- _____, 『읽으면 행복합니다-3』, 2001.
- _____, 『교육제주-2002 여름호』, 2002.
- _____, 『두 번째로 엮은 독서지도 이렇게 합시다』, 2003.
- _____, 『읽으면 행복합니다-5』, 2003.
- _____, 『읽으면 행복합니다-6』, 2004.
- 제주문화예술재단, 『삶과 문화』, 2004.